

# 서울샘터 교회 주보

2019년 10월 20일

교회력(다해), 전체 47주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창조절 여덟째 주일**

✚ 오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눅 18:8).



독일 서남부 지역의 바덴바덴 시(市)에 있는 한 교회당 돔 첨탑이다. 그 도시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24회 올림픽 장소로 서울이 결정됐다. 정용섭 목사가 3년 전 안식일 여행을 보내는 중에 찍은 사진이다.

## 개 회 예 전

### 예배의 부름 ... 목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행복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기에 죽는 순간까지 계속 붙들려고 애쓰는 게 아닐는지요. 우리 기독교인은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는다고 믿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 \*찬송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1,2,4절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을 은총으로 깨달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혼의 중심에서 우리나라 오는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자기 생각과 인생 설계 안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 사건에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진실하면서도 열정을 다하여 걸어가도록 붙들어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미래가 되시며, 우리 믿는 자들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에 신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7장(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 다 함께



예 배 처 소  
공 동 예 배  
간 식 / 친 교  
교 우 모 임  
목 사  
홈 페 이 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e/churchs>

이번주는  
4층 아트컬리지 4실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종종 잊고 삽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건성으로 들을 뿐,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회중: 주님, 우리를 용서해주시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을 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걸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한 것처럼 오해한 채 더 많은 것을 채우느라 삶을 소진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생명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공연히 불안해하고 쫓기며 공허한 것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지난 2천 년 교회의 예배 전통과 전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51장 (아름다워라) ... 다 함께**

M. D. Babcock

이은영

느린 곳거리

1. 아 - 름 다 - 워 라 주 님 의 세 - 계 는 -  
2. 아 - 름 다 - 워 라 주 님 의 세 - 계 는 -  
3. 아 - 름 다 - 워 라 주 님 의 세 - 계 는 -

솔 - 로 몬 의 옷 보 다 더 고 - 운 백 - 합 화  
아 - 침 해 와 저 녀 놀 람 과 잔 - 들 빛 - 난 별  
저 산 에 부 는 바 람 과 잔 - 한 시 - 냇 물

주 찬 송 하 는 듯 저 맑 은 새 소 리  
망 망 한 바 다 와 데 들 푸 른 봉 우 리  
그 소 리 가 운 데 주 음 성 들 리 니

내 - 아 버 - 지 지 으 신 그 숨 쉴 깊 - 도 다  
주 - 하 나 - 님 영 광 을 그 잘 드 러 내 - 도 다  
주 - 하 나 - 님 큰 뜻 을 내 알 듯 하 - 도 다

## 말 씬 예 전

###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많은 소리와 문자에 휘둘러/ 우리의 영혼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또는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는 유일한 길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제1독서 예레미야 31: 27-34 ... 고중흥 집사

### 성서교독 시편 121: 1-8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이산저산 쳐다본다 모든도움 모든능력 하늘과땅 창조하신 우리주님 이루셨네  
 -우리주님 행여내가 헛된걸을 디달까봐 나를고이 지키시려 주무시지 않으시네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을 잊지마라 주무시지 않으시고 한눈팔지 않으신다  
 -주님너를 지키시려 오른편에 서계신다 너를감싸 보호하는 그늘되어 주시기에  
 낮의해도 감히네게 손을대지 못하였고 밤의달도 감히네게 손을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너를지켜 재앙에서 구하시며 주님께서 네영혼도 함께지켜 주시리라  
 -나갈때나 들어올때 언제든지 우리주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를지켜 주시리라

### 제2독서 디모데후서 3: 14- 4 :5 ... 고중흥 집사

### \*제3독서 누가복음 18: 1-8 ... 고중흥 집사

###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배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 설교 갈급한 영혼 ... 이춘우 목사

### 설교후기도 ... 설교자

### 찬송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1,2,5절 ... 다 함께

## 봉 헌 과 친 교 예 전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헌금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1절 ... 다 함께

### 중보기도 ... 목사

###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 \*마침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2절 ... 다 함께

###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창조절 여덟째 주일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영혼으로 돌아가십시오.

### \*축복기도 ... 목사

### \*후주 ... 반주자

## [알리는 말씀]

\* 예배 후에 반별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교 사상사: 박재진 목사
- 과학과 신앙: 김용성 집사
- 기도와 교제: 오미영 집사
- 청소년 반: 김재남 집사

지난주일 헌금 1,345,000원

(2019/10/13)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 예배준비

|         |       | 예배실         | 예배 인도 | 성경봉독 | 헌금 / 안내 |
|---------|-------|-------------|-------|------|---------|
| 창조절 8주  | 10/20 | 4층 아트컬리지 4실 | 이춘우   | 고중흥  | 양혜선     |
| 창조절 9주  | 10/27 | 2층 세미나 1실   | 박재진   | 윤동희  | 박수진     |
| 창조절 10주 | 11/3  | 4층 시청각실     | 이춘우   | 김용성  | 윤혜정     |
| 창조절 11주 | 11/10 | 2층 세미나 2실   | 정용섭   | 이유선  | 오미영     |

## 10월 13일 설교 “말다툼과 진리의 말씀” 발췌

복음을 옳게 분별하는 일은 신학자와 목사들의 몫이지 일반 신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은 일반 신자들에게도 해당합니다. 복음 선포가 옳은지 아닌지를 분간해야만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의 특징은 설교를 분별하지 않고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조건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치거나 거꾸로 무조건 비난할 뿐입니다. 늘 들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어렵다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약간만 달라도 낯설다 하여 당황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을 뿐이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기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영혼이 예민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바울의 권면이 실질적인 것으로 들리겠지요.

옳게 분별하는 일은 ‘진리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해당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힘에 떠밀려가는 인생을 면치 못합니다. 노골적으로 질문하는 저를 이해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실제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과 저는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아직이지 앞으로도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잠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의 느낌이 정말 이상합니다. 어제와 그제, 그리고 일주일 전과 한 달 전이 한순간으로 느껴집니다. 일 년 전과 십 년 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시절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칠십이 내일 모래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칠십이 내일 모래입니다. 저는 곧 구십이 내일 모래라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살이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아닌지를 옳게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혼이 없는 동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여기 모인 여러분은 다 할 겁니다. 다만 아무리 옳게 분별해도 삶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으니깐 어쩔 수 없이 발등의 불을 끄느라 바쁘게 사는 거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삶을 옳게 분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말다툼하면서 보낼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삶을 옳게 분별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데, 하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나요? 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달라진 삶이 확연하게 경험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에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은 옳게 분별하는 노력을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본주의 체제가 제공하는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그런대로 쾌적하게 살만합니다. 그걸 행복한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더더욱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늙고 죽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소개하면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목동인 산티아고는 연금술사를 찾아가는 순례길을 떠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서 연금술사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만드는 비술(秘術)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금으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모래 한 알이 바로 우주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실재가 아니라 환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씨앗 한 알에서 생명의 신비를 봅니다. 한순간에서 영원한 시간을 경험합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할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일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말을 저의 버전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다툼에 속하는 일들은 대폭 줄이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은 대폭 늘리십시오.